

# 한국의 풍수지리 사상과 심층 생태학

김희경

## 1. 연구 방향

—현대 서양 과학과 고대 동양 철학의 인식 체계의 상동성

서구의 과학 역사에서 20세기 초의 핵물리학이 가져다 준 현대 물리학의 새로운 이론들은 고전 물리학에 가하는 충격으로서만이 아니라 과학적 인식 자체의 새로운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제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문명의 진보의 기본 원리로 받아들여왔던 근대 과학의 기계론적 개념이 그 유효성의 한계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빈자리는 새로운 방향의 연구들의 영역으로 확보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세기 말에야 서구 문명에 접하게 된 우리는 그 이후 계속해서 서구의 과학적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의 사고의 틀을 맞춰와야 했다. 이러한 사고의 관점에서 우리 전통 문화는 비합리적이어서 현대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무의식에 스며들게 되었고, 우리는 조금 더 열심히 서구의 합리적인 사고를 뒤쫓아가야 한다는 조바심에 우리 전통 인식 방법에 대해서는 성찰의 시간과 기회가 나지 않고 있었다. 예를 들어 풍수 사상은 중국에서 전래된 우리 선조들의 '전통적인 지리과학'이었지만, 인식

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전통적인 방법과 단절된 지금 민간 신앙(민속)의 차원으로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기계론적 세계관의 군림이 끝나자 인간 정신과 물질 세계를 분리시키며 기계 장치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연은 일정한 해답을 내는 선형 방정식으로 풀리는 간단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자연은 기계가 아니라 생명 현상임이 점점 밝혀지면서 물리학에서 물질이나 실체 개념이 차지했던 중요성은 생명 과정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새로운 과학, 넓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생명과학'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생태학은 이 넓은 의미의 생명과학의 바탕이 되는 학문일 것이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새로운 생태학적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의 협동(학제 간 연구)으로 체계화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진척됨에 따라 발견되는 성과물의 공통적 특성이 이제까지 비합리적이고 치부했던 동양 철학 사상의 근본 전제들과 상동적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몹시 흥미롭다.<sup>1)</sup>

동양 사상은, 특히 고대 중국의 역(易)의 체계가 보여주듯이, 모든 존재가 그 보이지 않는 바탕에 궁극적인 토대인 '하나로 통일된 연속체'를 이루고 있고 이 연속체는 그 자체 내부에 규칙적인 질서를 유지하도록 배열되어 있다는 우주론적 생각에 그 근본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그 사상에서는 '존재'와 '전체성'과 '규칙적인 역동성'을 배제해본 적이 없다. 이러한 특징들은 생명의 본질을 이루는 것으로, 고대 동양 철학은 서구 과학이 이제야 눈을 돌리는 생명 현상을 파악하려는 관점에 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서구의 근대 과학은 물질과 정신의 이분법으로 인한 인식론에서 존재론의 영역이 축소되면서 그 관계는 점점 소원하게 되었고, 분석적인 방법은 전체적인 특성들을 파악하는 데 역부족이었으며, 기계론적 세계관은

---

1) 서구의 현대 물리학자들이 동양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F. Capra, *The Tao of Physics*, 1975, 역서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 범양사, 1979.

정적인 힘의 관계만을 살펴면서 진정한 역동성이라는 문제의 핵심을 비켜 가기 일쑤였던 것이다. 따라서 근대 과학의 분석적 사고로 볼 때 동양 사상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본다면 '초합리적'인 생명 인식 체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현대 과학 분야에서 생명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점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전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본이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서 여러 분야에서 발달되고 있는 심층 생태학의 인식 체계와 우주론적 역동 구조를 지리학에 연계시켜 발전된 풍수 사상을 살펴보면서 시간적·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사상의 인식 체계가 전체성·역동성·순환성이라는 생명 현상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주며 상동성을 지니고 있음을 살펴 보려 한다.

## 2. 심층 생태학

### — 생명에 대한 시스템적 관점

과학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요즈음 환경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기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렇게 발전된 과학이 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문제가 남아 있게 될까 하는 자문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환경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개발이 역비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자각은 경제적 논리를 내세우며 눈을 감고 있는 몇몇 집단을 제외하고는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다.<sup>2)</sup> 이제

---

2) 식량 증산을 위해 연구 개발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유해성의 유무는 아직 논란거리이며, 최근의 유럽의 광우병 파동은 초식 동물인 소의 먹이로 성장 축진을 위해 사용한 동물성 사료가 그 원인일 거라는 연구로 이 사료의 전면적인 금지가 발표되었다. 진정한 경제성이 무엇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는 개발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과학적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 또한 점점 체계화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서 시작되어, 환경 문제들이란 상호 의존되어 있는 문제들이므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깨달은 요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은 사회 운동으로 혹은 정치 세력으로까지 등장하여 그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다.

환경 문제의 중요성으로 전면에 부상하게 된 생태학ecology은 19세기에 생물 집단을 연구하기 시작한 유기체설 생물학과에서 출현한 것으로, 1866년에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독일의 생물학자 에른스트 헤켈 Ernst Haeckel은 “유기체와 그 유기체를 둘러싼 외부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과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3)</sup> 초창기의 생태학은 주로 동식물 집단 내에서의 기능적 관계 — 주로 먹이 관계 — 에 관심을 갖다가, 그 관심이 집단적 단위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생태계 ecosystem란 용어가 등장하게 된다. 1939년에 영국의 식물 생태학자인 탠슬리 A. G. Tansley가 제안한 신조어인 생태계는 “유기체 집단이 집단 내부에서 갖게 되는 상호 간의 관계와 무생물적 환경과의 관계에서 상호적인 적응을 보여주는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들의 총체”로 정의된다.<sup>4)</sup> 이 용어의 정의에서 주목하게 되는 집단과

3) Fritjof Capra, *The Web of Life*, 1996, 역서 『생명의 그물』, 범양사, 1998, p. 53 참조. Emile Crognier, *L'écologie humaine*, P.U.F., 1994, p. 12 참조: “C'est le biologiste Ernst Haeckel, qui le premier a utilisé le terme 'écologie' (de *oikos* : demeure[주거의 의미] et *logos* : science) pour évoquer les modes de vie des animaux, en particulier leurs rapports intra- et interspécifiques, mais aussi leurs rapports avec les plantes et avec l'environnement inorganique.”

4) Emile Crognier, *L'écologie humaine*, p. 16: “Proposé par A. Tansley en 1939, ce concept est devenu rapidement le véhicule le plus commun des études écologiques. Il est défini comme *«l'ensemble de relations relativement stables, qui rendent compte des adaptations mutuelles d'un groupe d'organismes les uns avec les autres et avec leur environnement inerte»*(l'ensemble des créatures présent dans l'écosystème est appelé la *biocénose*(군집), l'ensemble des éléments abiotiques étant le *biotope*(일정한 생물학적 환경 조건)(biocénose + biotope = écosystème).”

관계라는 개념은 다양한 생물들의 영역을 다층적 관계로 설명하며 그 연결망을 끝없이 넓혀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연결망적 관점은 시스템적 사고의 중요성과 연계되어 발전하면서 생명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제 생태학은 좁은 의미에서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에만 그 관심을 한정하지 않고,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 생명 그 자체의 문제에 다가가면서 이제까지의 과학적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생태학적 인식'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다.

심층 생태학 deep ecology<sup>5)</sup>은 이러한 새로운 생태학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어, 좁은 의미의 생태학, 즉 인간 중심적인 생태학(표층 생태학 shallow ecology), 다시 말해서 인간 혹은 생물과 그 환경의 이분적인 구분에 바탕을 둔 생태학적 관점에 대비됨을 표방하는 한 철학 학파에 의해 사용된 용어로,<sup>6)</sup> 이 심층 생태학적 견해를 따르자면, “세계를 분리된 사물들의 집적으로 보지 않고, 근본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인 현상들의 연결망 network으로 본다.” 이 견해가 내포하고 있는 (이 세계를 서로 분리된 부분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전체로 보는) 전체론적 세계관은 이제까지 근대 과학이 가져다 준 우리 인식의 바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인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사고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sup>7)</sup>

근대 과학적 사고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인 데카르트의 분석적 사고가 모든 복잡계에서 전체의 움직임이 그 부분들의 특성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는 믿음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면 생명의 특성은 이러한 사

5) 생태학에 대한 다른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사회 경제적 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둔 '사회 생태학'과 여성 문제와 자연, 환경 문제와의 연관성에 바탕을 둔 '에코페미니즘'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6) 이 철학 학파는 노르웨이 철학자 아르네 나에스 Arne Naess에 의해 세워져 전세계적인 대중 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카프라, 『생명의 그물』, p. 22 참조.

7) Fritjof Capra,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The Turning point』, 범양사.

고로 완전하게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 생태학적 세계관의 입장이다. 생태학적 세계관은 시스템적 사고<sup>8)</sup>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사고 방식은 유기체, 즉 생물 시스템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들은 부분들 사이의 상호 작용과 연관성에서 발생하는 전체의 특성이고, 따라서 전체의 성질은 부분들의 단순 합과는 다르다고 본다는 면에서 부분으로 환원하여 이해하는 데카르트와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과 그 인식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생물의 유기적 관점, 즉 시스템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부분의 특성들은 전체의 조직이라는 측면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시스템적 사고에서는 어떤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보다 큰 맥락 속으로 통합(맥락적 contextuel 사고)시킨다. 어떤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 작은 부분으로 나누는 분석적 사고에 바탕을 둔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부분이 강조되었다면 이제 생태학적 세계관에서는 전체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시스템적 사고에서 전체라는 개념은 다층적 구조 multileveled structures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부분의 관점에서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조직은 보다 큰 전체에 대해서는 부분이 되는 다층 구조의 복잡한 조직인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각각의 수준에서의 전체성은 그 수준에서의 부분들의 관계에서 '창발되는 emergent 특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어느 수준에서 관찰된 현상들은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렇게 각각의 수준에서 관계의 구성 pattern을 형성하면서 미시적인 세계에서 거시적인 세계까지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다는 견해는 생태학적 인식에서 핵심적인 것이다.

현대 물리학에서의 미시적인 세계에서의 새로운 발견은 이러한 생태학적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뉴턴 이래로 확립된 고전 물리학에서 모든 영역에 적용되었던 확실한 물질 입자에 바탕을 둔 실체 개념은 양자 역학

---

8) 카프라, 『생명의 그물』, pp. 46~49 참조. 시스템(체계)이라는 말은 “그 부분들 사이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특성이 발생하는 통합된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시스템적 사고는 어떤 현상을 보다 큰 전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대두되면서 원자 이하의 수준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이 밝혀졌는데, 이는 분자나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소립자란 물질들이 아니라 물질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률의 패턴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의 확률은 전체적인 시스템의 동역학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부분의 특성이나 움직임은 전체가 결정하게 되어, 부분이 강조되었던 고전 역학과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연이란 더 이상 고립된 구성 재료들을 보여주지 않고, 통합된 전체의 여러 부분들 사이의 상호 관계의 복잡한 그물망”으로 나타나게 된다.

세계를 이러한 연결망 구조로 보는 관점은 1970년대에 물리학에서 수립한 제프리 추 Geoffrey Chew의 ‘구두끈 이론bootstrap theory’에서 물질을 이루는 궁극의 기초 단위라는 개념을 포기하고 물리적 우주를 상호 연관된 사건들의 동역학적인 그물망으로 보는 데 이르면 더욱 체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생명의 본질로 나타나는 이 연결망 패턴은 ‘복잡성 수학(동역학적 시스템 이론)’<sup>9)</sup>이 발전하고 고속 컴퓨터가 발달함에 따라 ‘카오스 이론’<sup>10)</sup>과 ‘프랙털 기하학fractal geometry’<sup>11)</sup>이 등장하게 되면

9) 무수한 화학 반응들을 포함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기 위한 수학적 틀로서 일반적으로 ‘복잡성의 수학mathematics of complexity’이라 불리고, 전문적으로는 ‘동역학 시스템 이론dynamical systems theory’ ‘시스템 동역학’ ‘복잡 동역학complex dynamics’ 또는 ‘비선형 동역학nonlinear dynamics’ 등으로 불린다.

10) 카오스 시스템의 이론의 발전은 20세기 초반에 수학자 쥘 푸앵카레Jules Henri Poincaré가 복잡한 동역학적 문제들의 정성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한 ‘위상 기하학topology’ (그 속에서 길이·각도·면적이 모두 마음대로 비틀어질 수 있는 종류의 기하학)에 힘입은 바 크다. 이러한 독특한 시각 기하학은 ‘상태 공간phase space’이라 불리는 추상적인 수학적 공간 속에서 복잡계complex system의 비선형적 방정식을 ‘끌개attractor’라 불리는 모형으로 나타내게 된다. 자연 현상을 기술하는 대부분의 비선형 방정식은 공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분석적인 해법’으로는 풀 수 없고, 수많은 변수들을 대입시켜 근사치에 도달하도록 하는 ‘수치numerical 해법’을 쓰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고속 컴퓨터의 등장으로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단축된 시간 안에 처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해결들을 기하학적 모형으로 재현해주게 된 것이다. 카프라, 『생명의 그물』, 6장 ‘복잡성의 수학’ 참조.

11) 프랙털 기하학은 프랑스 수학자 브누아 만델브로Benoît Mandelbrot가 1950~60년대에 불규칙한 자연 현상의 폭넓은 다양성을 다루는 기하학을 연구하면서 이 다양성들 속에 놓

서 연결망의 비선형적인 상호 연결성을 모형화할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인 이해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론들이 보여주는 시스템적 사고의 공통적인 특징은 강조점을 대상에서 관계로, 양에서 질로 전환했다는 점일 것이다. 특정한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카오스 시스템의 변수들의 값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시스템의 움직임의 질적 특성은 예측할 수 있으며, 프랙털 형상의 면적이나 길이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굴곡진 모양새는 짐작할 수 있게 되고, 구겨놓은 종이는 펴놓은 종이보다는 더 많은 면적을 채우게 되므로 선의 굴곡이 심해질수록 차원이 높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생명 시스템의 연결망 패턴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생성적(자체적으로 역동적)이라는 데 있다. 이는 비선형성·비평형성이라는 관계들의 특성들과 연관된다. 이로써 고전 열역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평형과는 거리가 먼 상태 속에서 스스로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게 되는 살아 있는 유기체의 생명 활동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역동적 이론을 발전시킨 큰 주역은 러시아 태생으로 벨기에 대학에 있었던 물리·화학자인 일리아 프리고지네 Ilya Prigogine의 '소산 구조dissipative structure'였다. 소산 구조란 "화학적 시스템들이 다른 구조를 파괴하여 자신의 구조를 유지 발전시키는 신진대사 과정에서 분해된 폐기물의 형태(흩어져버리는 엔트로피)를 만들어내는 사실"<sup>12)</sup>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수천 가지의 화학 반응을 포함하는 신진대사 과정은 화학적·열적 평형 상태와는 거리가 멀지만 긴 시간으로 보면 안정적인 이러한 비평형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를

---

라운 공통적인 특성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창조된 새로운 유형의 수학이다. 이 '프랙털' 형상들이 갖는 가장 놀라운 특성은 그 특징적인 패턴들이 모든 크기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이었다. 형상들의 부분들은 어떤 크기에서도 그 형태에서 전체와 비슷하다는 '자기 유사성self-similarity'의 특징은 그 구조가 그 속에서 동일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다층 하부 구조로 존재함을 밝혀주는 것이다.

- 12) 카프라,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p. 256; 『생명의 그물』, 8장 '소산 구조', pp. 234~56 참조.



유지하고 있음을 밝혀주었다. 고전 열역학에서는 열 손실이나 마찰로 인한 에너지 소산의 법칙은 선형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언젠가 정지된 평형 상태(점차 속도가 느려져 멈춰 서는 엔진)에 도달하게 되지만, 평형 상태와 거리가 먼 생물 시스템의 과정들은 엔트로피를 계속해서 생산해내며 복잡성이 증가하는 형태(비선형 관계)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비선형적 시스템의 과정들은 복수의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통해 상호 연결되어 순환적인 경로로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프리고지네의 소산 구조는 무질서의 극대의 상태인 열 평형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열역학 제2법칙에서의 소산 법칙과는 달리 스스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평형 상태와 거리가 먼 상태가 되면서도 새로운 질서를 발생시킬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역동적인 질서'라는 생명의 역설적인 상황 — 프리고지네의 표현을 빌리면 “요동을 통한 질서 order through fluctuations” — 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생명은 이렇게 자기 생성과 자기 조절 능력을 갖게 되면서 자기 조직화가 가능함이 밝혀지게 되었다.

생명 시스템의 연결망 패턴과 자기 조직화(자동 제작적 조직 패턴)가 결합되면서 자동 조절 체계로서의 전지구적 연결망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게 된다. 행성 지구가 전체로서 살아 있는, 자기 조직하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은 영국의 대기 화학자 러브록(James Lovelock)이었다. 그는 대기의 화학적 조성 성분을 분석하면서 행성에서의 생물 생존의 가능성을 가늠해보다가, 더 이상의 화학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화학적 평형 상태를 보이는 다른 행성과는 달리 지구는 화학적 평형 상태와는 거리가 먼 상태로 서로 상호 작용을 일으키기 쉬운 기체 혼합물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그는 지구의 대기는 평형 상태와는 거리가 먼 열린 시스템으로 에너지와 물질이 지속적으로 흐르면서 피드백 루프의 복잡한 연결망을 통해 자동 조절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을 가정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그리스 대지의 여신의 이름을 빌려 그가 발표한 '가이아 가설 Gaia hypothesis'<sup>13)</sup>이다. 이 가설은 생물권의 생물체들의 자동 조절 과정을 생각하지 못했던 대기

학자가 미국의 미생물학자 마굴리스Lynn Margulis를 만나면서 다양한 생물들에 의한 기체의 생성과 제거 과정(이산화탄소의 일례)의 문제가 풀리고 생물과 무생물의 통합적인 생명 시스템 연결망을 구축하게 된다.

생명 시스템은 그 연결망을 행성 지구로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전체와 부분의 일관된 관계를 밝혀 나가고 있다. 가이아 가설은 미시 세계에서 시작한 현대 과학적 발견이 거시 세계에까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생태학적으로 소중한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현대 과학의 인식론적 전환을 가져온 생명 시스템 연구들에서 보여준 공통 특성들은 연결망 패턴이 보여준 전체성, 평형과 거리가 먼 안정된 상태나 비선형 방정식으로밖에는 나타낼 수 없는 역동적 복잡성, 피드백 루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순환성, 그리고 비선형적 복잡 구조가 놓게 되는 새로운 질서 창발들로 요약할 수 있다.

### 3. 한국의 풍수지리 사상

#### —시공간의 질적 인식

##### I. 동양 전통 인식의 배경: 우주론적 역동 구조

동양 사상은 서구 과학과는 달리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 인식이 출발한다. 동양 사상이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토대로서의 '하나로 통일된 연속체'라는 형이상학적 우주론에 그 인식의 바탕을 두고 있고, 그 인식적 바탕에서 다양한 학문과 기술이 전개된다는 것을 수원형(數原型)을 통해 다룬 논문에서 살펴본 바 있다.<sup>13)</sup> 이 연속체라는 정신과 물질의 통합적 배경은 그 자체 내부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그 모든 것은 규칙적인 움직임의

13) 카프카, 『생명의 그물』, pp. 139~53, 281~85 참조.

14) 줄고, 「상상계와 문화 원형 연구: 수원형과 만다라」 참조.

흐름을 보여주는 정돈된 질서를 유지하고 있어 때로는 수원형 구조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역동적 흐름의 질적 양상을 나타내는 음양오행상(象)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재현되는 수원형이나 오행상(五行象)은 모두 존재의 배경이 되는 '하나의 세계'의 전체 구조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질적 양상을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기체적으로 파악된 우주의 생명의 율동적 양상을 재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행 운동에서는 안과 밖의 이중적인 움직임의 역동적인 조화로서 존재에서 대립되는 것의 상호 보완성을 주목하게 되는데, 이는 생(生)의 역설과 모순의 양상이 대립되는 것들을 통한 균형 잡기로 기인한 것이며 이는 삶의 역동성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이러한 조화(역동적인 통합)의 기반이 '원초적인 하나의 세계'로 나아가도록(재통합되도록) 하기도 하고, 또한 끝없는 생명의 양상이 펼쳐지게도 하는 요인이 된다.

음양오행의 우주론적 역동 구조는 그 의미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외삽 범위를 넓히며 거의 모든 분야의 인식론적 탐구 바탕을 이룬다.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형이상학이 되며 실용적인 접근에서는 일종의 자연과학의 방법을 제시하며 학식과 기술을 아우르는 공통 바탕을 이루며, 종교·천문·지리·정치·사회 제도·의술·군사 등등에 그 이론적 바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음양오행 사상의 역동적 구조는 자가 분화되는 그 전개를 더해 나감에 따라 하늘의 기운을 드러내는 10천간과 땅의 기운을 나타내는 12지지로 그 변화상을 확대해 나가고, 이 하늘과 땅의 기운이 결합하여 다양한 만물의 형상을 얻게 된다. 그 결합 양상은 분화 양상이 끝이 없듯이 무수하게 많겠지만 우리의 인식을 위해서 10과 12의 최소공배수인 60간지의 변화의 상으로 분절될 수 있다. 이 60간지는 무한한 공간과 시간을 분절하는 단위가 되어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어느 시공간의 질적 양상aspect qualificatif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분절 단위는 항상 전체와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양 사상

은 구조적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분절 단위의 의미는 상대성을 띠게 된다. 60간지의 하나하나의 간지는 시공간을 분절하지만 무한히 순환함으로써 하나의 세계인 전체를 재현하게 된다. 중국에서 세계를 나타내는 무한한 공간과 시간을 나타내는 우주라는 말처럼 우리는 하나의 통일체이면서 음양오행의 역동적 구조로 분절된 시공간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공간 인식은 모든 학문과 생활에 기본 바탕을 이루게 된다. 순환하는 간지들로 채워져 있는 동양의 책력도, 풍수지리에서 중요한 도구로 쓰이는 전통적인 나침반인 나경도, 모두 음양오행에 바탕을 둔 그 범위를 달린한 시공간 분절(팔괘, 10간, 12지, 60간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동양 사상이 유기체로서 여겨진 우주의 순환적인 생명 양상을 인식하여 형상화한 추상적인 시공간이 그 바탕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II. 풍수지리 사상: 공간의 질적 인식

전체를 분절하여 인식하도록 하는 질적 양상들이 무한히 순환하며 이루는 역동적인 원형 구조가 실제적으로 우리 학문과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가 풍수지리와 명리학(역리학)을 택한 이유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던 공간과 시간에 대한 동양의 질적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상을 가장 잘 명시하는 분야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또 다른 이유로는 지금의 서구화된 우리의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 한국인의 무의식에 아직도 여러 면에서 암암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은 많다. 실제 적용을 위해 선택한 이 두 분야가 오랜 전통을 지녀왔지만 민간의 기복을 위한 술수로서만 활용되어오면서 학(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론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객관적 관점을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sup>15)</sup> 그리고 동양

15) 서양 학문적 방법으로 지리학을 전공하고 나서 풍수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였던 최창조가 풍수지리설의 논리 구조를 정리하려고 하였을 때 그 연구의 서두는 이러한 고민으로 시작한다. “風水地理設은 우리 民族의 基層의 思想體系를 이루어온 수많은 思想들 중의 하나

에서의 술(역술, 무술 등등)이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는 분야는 실제 경험  
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종사자가 아닌 외부인이 언급하는 데는 많  
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는 이 두 분야가 실  
제 다루고 있는 대상을 재단하는 방식만을 문제삼을 생각이다.

풍수의 개념과 논리 구조를 정리하려고 시도하였던 현대 지리학자는 앞  
서 있던 많은 풍수서들이 남겨놓은 전례를 탐사한 끝에 풍수 사상의 정의  
와 구성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풍수지리설이란 음양론과 오  
행설을 기반으로 주역의 체계를 주요한 논리 구조로 삼는 중국과 우리나라  
의 전통적인 지리과학으로, 추길피흉을 목적으로 삼는 상지기술학(相地  
技術學)이다. 이것이 후에 효의 관념이나 사머니즘과 결합되어 이기적인  
속신(俗信)으로 진전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일종의 토지관의 표출  
이라 할 수 있다. 풍수설의 구성은 산·수·방위·사람 등 사자의 조합으로  
성립되며, 구체적으로는 간용법(看龍法)·장풍법(藏風法)·득수법(得  
水法)·정혈법(定穴法)·좌향론(坐向論)·형국론(形局論) 등의 형식 논리  
를 갖는다.”<sup>16)</sup>

현대 지리학자가 보는 풍수 사상이 ‘전통적인 지리과학’이라면 풍수란  
토지와 그 공간 안에 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보는 시각이 담겨 있다 하겠  
다. 풍수설의 구성이 산·수·방위·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이 네 가지 구  
성 요소 중 앞의 세 가지, 산·수·방위는 토지 공간에 관련되어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다시 말한다면 이 토지 공간과 사람과의 관계라  
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람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적 요소가 갖  
는 중요성이야말로 객체 중심 연구에 치중하는 현대 지리학과 풍수와의

---

로, 그 내용의 聖俗이나 眞假를 막론하고 新羅 以後의 歷史上 우리 民族에 깊은 영향을 미  
친 觀念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研究書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은 기이한 느낌을 준다. 물론 研究가 全無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風  
水地理說을 그 자체로서 理論 內容을 정리하고 그것을 分析·解釋하는 작업이 없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최창조, 『한국의 풍수 사상』, 민음사, pp. 11~12.

16) 최창조, 앞의 책, p. 32.

차이점일 수 있다. 풍수가 문제되었던 것은 양택(陽宅)이건 음택(陰宅)이건 항상 사람에게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찾는 일과 연관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이라는 개념을 인간 안에서 재단하여 귀속시켰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자연적 요소인 토지 공간 자체가 인간처럼, 아니 인간보다 더 큰 규모로 된 유기체적 생명력을 지닌 것으로 여겨져 사람이 이 생명력 안에 들어가려는 노력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서 풍수 사상이 동서양의 고전에서 전래되어오는 대우주와 소우주와의 전형적인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풍수에서 필요한 주요 관점들에 입각하여 정리된 방법들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간용법과 정혈법을 보면 자연적 대상인 산에 대한 독특한 관점에 풍수 사상이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산맥의 흐름과 형태상으로 유사한 신화적 동물인 용이 산의 상징물로서 비유되어 표현되고, 이 용의 기운, 즉 산의 정기를 살피려는 간용법이나, 이러한 기운들이 모여 생기가 넘치는 혈(穴)을 정하는 정혈법을 보면 모두 인체의 기운(氣運)이나 경혈(經穴)의 개념과 상응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풍수의 방법들로 위에 제시된 것들을 모두 세부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본다.<sup>17)</sup> 간단하게 소개만을 한다면, 간용법이란 간략하게 말해서 산세(山勢)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용이란 ‘가시적 실체’로서 표출되는 산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산의 정상으로부터 사방으로 뻗어간 줄기”<sup>18)</sup>를 말한다. 이 “용 속에는 감추어진 산의 정기, 즉 지기(地氣)가 유행하는 맥(脈)이 있어 간용에서는 용을 체(體)로, 맥을 용(用)으로 하여 그것을 찾는다.”<sup>19)</sup> 여기에서 맥이란 지중(地中)의 생기로 인체의 혈의 이치로서의 맥과 일맥상통한다. 산을 보면 단독으로 서 있는 산이 드물다. 지형적으로 산은 항상 다른 산들과 더불어 흐름(산맥)을 이

17) 자세한 내용은 최창조의 앞의 책, 제3장 풍수설의 원리, pp. 71~188, 33~40 참조.

18) 최창조, 앞의 책, p. 54.

19) 최창조, 앞의 책, p. 33.

루고 있는 것이다. 그 흐름 안에서 특정한 산의 풍수적 의미가 산출되는 것이며, 때로는 아주 드물지만 산이 연결되지 않거나 아예 산이 없는 평지에서도 지맥을 살펴 풍수의 의미가 발생하기도 한다.

풍수의 목표는 “용맥(龍脈) 중 음양이 합국(合局)되고 산수의 정기가 응결된 곳,” 즉 진혈(眞穴)을 찾는 데 있다. 이러한 진혈을 찾는 방법에 있어 주변의 지세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 된다. 진혈과 이 혈의 앞에 위치한 땅인 명당 주변의 지세(地勢)에 관한 풍수 이론을 장풍법이라고 한다. 풍수라는 용어 성립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바람은 주요 요인이 되는데, 『금낭경(錦囊經)』(葬書)의 저자인 동진(東晉)의 곽박(郭璞)에 의하면, “기가 바람을 타면 흩어져버리고 물에 닿으면 머문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자(葬者)가 생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법술(法術)을 바람과 물 즉 풍수라 일컫게 되었다”<sup>20)</sup>고 한다. 장풍법의 목적은 혈장(穴場) 주위를 산이 둘러싸고 있어 바람을 막고 중앙의 혈지(穴地)에 음양이기(陰陽二氣)가 결합하여 생기가 활발하도록 하는 곳을 탐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풍은 혈 주위의 산세를 주로 청룡·백호·주작·현무의 사신사(四神砂)로 파악하며, 여기에 더하여 오성(五星) 등등을 살핀다. 사신사란 혈전(穴前: 주로 남향)을 바라보며 전후좌우의 네 방향의 산을 일컫는 말이다.

혈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에 위치한 네 방위의 산은 우리가 '수원형의 연구'에서 살펴본 만다라상의 구조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먼저 혈의 뒤에 있는 북쪽을 살펴보면, 혈장 뒤에 있는 산을 주산(主山: 혈을 진정시키고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鎮山이라고도 한다)이라고 하고 이 주산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멀리 떨어진 큰 산을 조산(祖山)이라고 한다. 혈의 북쪽 산인 이 주산을 거북의 상징을 나타내는 현무라 한다. 이 현무는 방위상 오행의 수(水) 기운에 속한다. 왼쪽에 있는 동쪽 방위를 둘러싸고 있는 산을 청룡이라 하며 이는 오행상 목(木) 기운을 드러내며 주산에서 갈라져 나간 왼쪽 산줄

20) 郭璞, 『葬書』, 『地理正宗』, 卷二, 최창조, 앞의 책, p. 35에서 재인용.

기를 말한다. 백호는 서쪽 방위의 금 기운을 맡는다는 상징적인 동물로서 여기에서는 혈의 서쪽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일컫는다. 혈의 전면인 남쪽은 화(火) 기운을 나타내는 주작이라는 상징적인 동물로 나타내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산으로는 안산(案山)과 조산(朝山)이 있다. 안산은 “혈 바로 앞에 있는 나지막한 산으로 주산과 그에 대한 객산이 마주하고 앉은 사이의 책상이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고, 조산은 “조대산(朝對山)이라고도 하며 혈 앞에 있는 고대(高大)한 산으로, 주인에 대한 손님, 임금에 대한 신하의 비유로 주산에 대칭된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 혈 주위의 네 방향의 산을 사(砂)라고 일컫는 것은 종이가 없던 예전 시절에 풍수설을 설명할 때 산천의 형세를 모래로써 표시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풍장론에 의하면 좋은 혈이란 결국 좋은 환경에 의해 생기가 보존되는 곳을 일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즉 지세(地勢)의 외적 모습을 다른 형상에 비유하여 판단하는 것을 형국론이라고 하는데 이는 풍수의 본래 목적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산의 유형을 외형으로 분류하여 파악하려는 시도로 간주할 수 있다.

득수법은 일반적으로 음양적 조화의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이 보통이나 수(水)를 사람의 혈액에 비유하여 이해하기도 한다. 대략적인 음양으로 살펴보면 정지되어 있는 산을 음(陰)으로 간주하고 동적인 수를 양(陽)으로 보기도 하나 산수 모두에 음양이 있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 수의 길흉의 판단은 거의 모두 방위와 관련되어 있어 좌향론과 연관이 깊다.

정혈법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풍수의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목표와 대치할 수 있는 이 단계는 사실 풍수의 모든 과정의 수렴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혈이란 “음양이 합국되고 산수의 정기가 응결된 곳,”<sup>21)</sup> 즉 달리 말한다면, 음양의 두 기운이 결합하여 생기가 활발한 곳이다. 이와 같은 혈(眞穴)

21) 최창조, 앞의 책, p. 56.



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맥이 생기 활발해야만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을 탐색하는 것이 우리가 위에서 말했던 진룡 혹은 생룡을 찾는 간용법이다. 그리고 장풍·득수 등의 주위의 환경이 모두 적합해야만 진혈이 될 수 있으므로 정혈은 화룡점정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결국 침구법에서 경락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정확한 경혈에 침이나 뜸을 놓아 병세를 호전시키듯이 풍수에서도 용맥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진혈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용맥의 흐름 파악이나 진혈을 정하는 정혈법을 포함한 모든 풍수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바탕은 천문 지리를 연구하는 데 형이상학적 자연 철학을 이루는 음양론이다. 그리고 풍수의 필수적인 도구가 바로 이 음양론에 바탕을 둔 나경(羅經)이다. 음양론에 바탕을 둔 나경을 사용하는 방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풍수 원리가 풍수 요소들 중 방위와 관련된 좌향론이다. 장소를 선택하는 풍수에서 선택 기준을 마련하고 길흉을 판단하게 하는 것은 지세와 방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풍수에서의 이 방위(공간의 분절과 방향성)의 인식 방법은 자연 현상물로서의 토지 공간과 인간 둘 다를 우주론적 인식의 대상으로 확대 해석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풍수가 추구하고자 하는 본질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좌향은 '선택된 방향'을 가리키는 말로서 방향 자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한 지점(地點)이나 장소는 무수한 방향을 가질 수 있으나 선호성에 의해 결정되는 좌향은 단 하나뿐"<sup>22)</sup>이기 때문이다. 혈과 관련된 좌향은 혈의 뒤쪽 등진 방위가 좌가 되고 혈이 바라보는 정면을 향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좌향을 정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나경이라는 나침반이다. 나경은 중앙에 자침이 있고 이 중앙을 둘러싼 보통 예닐곱 개의 동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동심원들은 크기가 작은 원부터 8, 12,

22) 최창조, 앞의 책, p. 153.

24, 60방위별로 분절되어 있다. 풍수에서 보통 기준으로 잡는 것은 “24방위도를 사용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이 24방위는 각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아니라, 음양·오행·팔괘·10간·12지라는 방위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질적 양상들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팔괘의 방위 배치는 낙서의 방위와 같은 문왕후천팔괘방위도를 따라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 정북에 감(坎), 정남에 리(離), 정동에 진(震), 정서에 태(兌)가 위치하며, 그 사이의 45° 방위에 복동에 간(艮)을 남동에 손(巽)을 남서에 곤(坤)을 북동에 건(乾)을 배치하게 된다. 10간은 갑을목, 병정화,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의 오행의 방위에 따라 목은 동방에 화는 남방에 금은 서방에 수는 북방에 위치시키고 토는 중앙에 위치시키므로 배제한다. 각각의 방위에 한 오행수에 두 간을 30°로 배치한다. 예를 들면 동방의 갑을목은 甲을 N 75°E에, 乙을 S 75°E에 위치시키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배치한다. 12지는 자를 정북에 두고 시계 방향으로 30° 간격으로 배치하면 된다. 여기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10간의 무기토는 중앙에 위치하므로 배제하고 사정방(四正方) 동서남북에서 겹치는 괘상(卦象)과 지지(地支)는 지지로 대체하면 6이 배제되므로 30중 24방위도가 구성된다.<sup>23)</sup> 이 24방위도가 중간쯤의 동심원에 있고 좀더 원의 반경이 커진 동심원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60갑자가 배치된다. 미세한 각도로 배치된 60갑자는 세밀한 위치를 설정하기 위한 분금법에 이용되며 풍수의 또 다른 요인인 시간[曆]과 사람의 운명<sup>24)</sup>과 관련하여 좌향을 정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질적 구조를 보여주는 나경의 도움으로 어떠한 장소를 정한다고 할 때에는 선택하는 기준이 있게 마련이고 그 기준은 길흉의 해석이다. 바

23) 최창조, 앞의 책, pp. 161~64 참조.

24) 동양력은 60간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위에서 이미 언급했다. “흔히 연(年)의 간지를 세차(歲次), 월의 간지를 월건(月建), 일의 간지를 일진(日辰)이라고 한다.” 시간에 연관된 성질과 이 시간의 질적 양상을 바탕으로 설정되는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는 명리학에서 다루는 주제로서 자세한 연구는 다음으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시간의 질적 양상으로서의 동양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할 것이다.

로 이 점에서 좌향론은 풍수 원리의 방법론으로 간주될 수 있다. 나경이 음양오행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고 나경의 24방위는 그 방위 자체로는 길흉 판단의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대성을 나타낸다. 그러면 길흉 판단의 해석을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차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오행의 변화를 인간의 생장로사(生長老死)하는 여정에 비유한 오행생장방위(五行生長方位)나 포태(胞胎) 12신방위(神方位)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 방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행의 기운이 순환 활동을 하는데 있어, 그 오행의 기운을 나타내는 간(干)과 지(支)가 어디에서 발생해서 어디에서 소멸하게 되는가에 근거를 두고 '포(胞)·태(胎)·양(養)·활(活: 生)·욕(浴)·대(帶)·관(冠)·왕(旺)·쇠(衰)·병(病)·사(死)·장(葬: 絶)'의 12단계로 구분한 데서 나오게 된다. 오행의 12신방위 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25)</sup>

區分	胞	胎	養	活	浴	帶	冠	旺	衰	病	死	葬
巳酉丑金局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亥卯未木局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子辰水土局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寅午戌火局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금(金)은 인(寅)에서 시작하여 유(酉)에서 가장 왕성하여 축(丑)에서 소멸하고, 목(木)은 신(申)에서 시작하여 묘(卯)에서 가장 왕성하고 미(未)에서 소멸한다. 수(水)국과 화(火)국도 지지(地支)로 이루어진 12궁(宮)에서 같은 과정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미 정해진 오행에 대하여 다른 오행과의 상관관계는 이 과정에서 길흉 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왕성한 것은 길한 것이고 쇠퇴하여 멸하는 것은 흉한 것이라는 것은 생의 논리에

25) 최창조, 앞의 책, p. 169.

비취 간단하게 보인다. 이는 가장 잘 알려진 해석 방법으로, 보기에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 간단하거나 쉽지 않다. 변수들이 많기 때문이다. 산·수·방위와 같은 풍수의 요소들 각각에 적용되어 복합적으로 해석을 내려야 할 뿐만 아니라 길흉 판단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방위를 잡는 사람의 생년월일시의 오행 간지, 즉 사주(四柱)와의 상관관계까지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다면 고려해야 하는 변수들과 12궁과의 상관관계가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는 상당히 많고 그 수많은 경우에서 가장 적절한 경우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게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 추구하려고 하는 길상(吉象)의 공통적인 판단 근거는 '음양의 균형과 조화로 이루어진 안정성'이다.

### III. 명리학(命理學): 시간의 질적 인식

동양 사상의 근본 바탕을 이루는 음양오행이라는 원상(原象)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과학적 용어로 말한다면 지구와 달의 공전과 자전 운동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운동으로 발생하는 변화를 인식하는 한 방법이 시간의 개념이다. 일일주야(一日晝夜)의 변화와 일년사시(一年四時)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시간을 분절하여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동양에서는 이러한 시간의 변화를 음양오행의 변화로 재현해내어 10간과 12지지의 결합인 60갑자(甲子)의 순환으로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분절하는 모든 단위들이 60갑자가 나타내는 오행의 질적 양상으로 채워지고, 이것이 동양의 역(曆)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처하게 되는 어느 일시라도 연·월·일·시의 간지로 이루어지게 된다. 연(年)의 변화는 60갑자의 순환으로 이루어지며, 월의 변화는 12지지를 12달에 배당하는데 1월이 인(寅)월로 시작하여 축(丑)월로 끝나게 된다. 한 달의 나날들은 음력 절기에 맞추어 그 순서에 따라 간지를 할당받게 된다. 하루의 시간의 분절 역시 12지지를 각 지지에 2시간씩 할당하여 24시간을 배당한다. 이렇게 정해지는 연월일시의 간지를 찾는 방법은 12

지지에 맞춰 정해지는 월과 시는 쉽게 찾을 수 있으나 연과 일은 만세력을 참고해야 한다.

어느 한 시점의 질적 양상인 연월일시의 간지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곳은 사람이 태어난 시점을 간지로 표현하여 운과 명을 나타낸다는 속칭 사주(연월일시의 간지를 네 기둥으로 보고 각각의 간지의 수가 8자이므로 사주 팔자<sup>26)</sup>라 한다)이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우주의 기운을 받고 나온다는 전제 하에 태어날 때의 시점의 우주의 기운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기운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사주로 하여금 오랫동안 전래되고 민속 신앙의 대상이 되어왔던 이유인 것 같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기운이 우주의 기운과 상응한다는 의미에서 대우주와 소우주의 상관관계라는 동양 사상의 바탕적 사고에 연결되어 있지만, 한 시점의 질적 양상이 한 인간의 질적 바탕을 어떤 필연성을 갖고 설명해낼 수 있느냐는 확실한 근거를 댈 수 없으며 논란거리일 수밖에 없다. 풍수에서는 산과 물이 이루는 지세가 있어 그나마 보이지 않는 생기를 가늠해볼 수 있었지만 인간의 운명을 나타낸다는 시간의 질적 양상으로서의 사주는 그 자체가 음양오행이라는 구조 안에 들어 있는 간지의 한정된 해석에 준하여 인간에 대해 확대 적용하여 해석해야 하므로 상당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하여 사람의 기복적인 관점이 많이 주입되어, 시간의 질적 양상이라는 원형 구조에 바탕을 둔 이 해석 방법은 학문으로 정립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보여주는 질적 양상이 실존의 행위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시간의 질적 양상을 참고하여 파악하고자 한다면, 그때 해석된 상황은 운명 자체가 아니라 운명의 배경을 이루는 우주 기운의 흐름일 뿐이다. 인간은 초목과는 달라서 한 장소에

26) 사주추명학(四柱推命學)이란 8자의 간지의 음양 상생 상극 관계를 따져 인간의 기운과 운명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풍수에서 좌향이 정해진 한 방향에 따른 다른 방향의 길흉 관계를 따지듯이 8자의 상관관계는 일간(日干: 日柱에 있는 天干)을 중심으로 나머지 7자의 상관관계를 정하고 그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길흉 관계와 인간사를 해석하게 된다. 이러한 해석 방법은 구조적이라 할 수 있다.

고정되어 수동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자신의 행위를 창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자신의 행위를 창조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과 자율적인 마음이 있기에 자신의 운명을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지 우주 기운의 흐름을 인지할 수 있는 정신력을 지닌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좁은 테두리(가정, 사회)에서의 일신의 편안함으로 한정하여 추론하지 않는다면 시점의 질적 양상을 해석하면서 우주의 원형적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얻는 지혜가 생활의 중용을 찾고 심적인 자정 능력을 지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주가 사람의 '타고난 기상(氣象)'을 우주의 시간의 질적 양상으로 추론해보려 하는 시도임을 밝히는 것으로만 만족하려 한다.

#### 4. 마무리하며

동양에서는 공간과 시간을 유기체적 생명력을 지닌 우주의 생명 현상들이 나타나는 질적 바탕으로 보고 있다. 이 시공간에는 정신과 물질이 따로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전체와 부분은 항상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 하에서 파악된다. 풍수지리 사상에서 중요한 요소인 산은 형태로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기운이 흐르는 형상으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 보이지 않는 기운<sup>27)</sup>은 물리학적 개념으로 에너지로 볼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생명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력 파악을 핵심으로 여겼던 동양 사상은 항상 전체론적, 우리의 문맥에 맞게 말해서, 생태론적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풍수 사상이라는 명칭에서 나오는 바람과 물

27) 동양의 '기(氣)' 개념은 요즘 들어 동양 사상의 현대적 해석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정신과 육체의 중간 개념으로서 자주 인용된다. 박병운·정재서 외, 『기와 21세기』 참조.

이라는 자연 현상 또한, 경계가 있는 영역 안에 한정 지을 수 없는 생명의 열린 시스템을 고려한 것으로, 하나의 적합한 장소를 고르고 그 방향성을 고려해서 건축을 하고 혈을 잡는 데 전체적이고 역동적인 상호 관계를 고려함을 알 수 있다.

서구의 현대 과학과 고대 동양 철학의 인식 체계는 전체성·역동성·순환성이라는 생명 현상의 특징들을 공통점으로 갖고 있지만, 미시 세계(아원자·미생물)에서의 새로운 발견들에 바탕을 둔 서구의 현대 과학과 거시 세계라 할 수 있는 우주론의 원형 구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고대 동양 철학은 그 방법론의 차이로 인하여 단순 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무리가 따를 수 있겠지만, 다른 출발에서 시작해서 세상을 보는 비슷한 견해를 갖기에 이른 서로 다른 두 인식 체계는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의 인식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과학은 세밀한 세계에서 건져 올리는 새로운 발견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 있어 우주의 원형 구조를 통해 장구한 세월 동안 유지 가능했던 생태적 공동체의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오늘날 현대 과학적 인식의 상동성으로 인해 복원된 고대 동양 사상은 그 원형 구조를 실생활과 과학 기술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이제 생태학적 세계관에서 보면 과학이 가치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나의 생명의 그물에 얽혀 있는 생태학적 공동체에서는 그 가치가 인간 중심적이어서도 안 된다는 것 또한 명백하다. 인간은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그물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임을 자각해야 하지 않을까. 진정 인간이 우수한 종이라고 자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계산으로 그 수를 상상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유지해오고 발전해왔던 생태적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 가능토록 하는 것일 게다. 인간이 지구의 암세포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고 그 유기체의 흐름을 따르는 건강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경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인식이 생태적 세계관에 따라 바뀌어야 하고 그 생태적 세계관은 자연의 역동적 순

환 과정에서 그 지혜를 빌려와야 한다. 따라서 인문학은 이러한 지혜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인식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면에서 앞으로의 학문 연구에 그 역할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조지프 니덤, 『중국의 과학과 문명』 1~3권, 을유문화사.
- 박병운·정재서 외(1998), 『기(氣)와 21세기』, 양문.
- 양윤섭(1998), 「양택풍수의 생태 기후학적 고찰」, 『氣와 21세기』, 양문.
- 이부영, 『분석 심리학 — C. G. Jung의 인간 심성론』, 일조각.
- 심재열 구술(1987), 『연해자평정해』, 명문당, 중판.
- 최창조(1984), 『한국의 풍수 사상』, 민음사.
- (1992),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 민음사.
- 프리츠프 카프라(1975),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 *The Tao of Physics*』, 범양사, 1979.
- (1982),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The Turning Point*』, 범양사, 1985.
- (1995), 『생명의 그물 *The Web of Life*』, 범양사, 1998.
- 풍우란(馮友蘭), 『중국 철학사』 상·하권, 까치, 1999.
- 한동석(1966), 『우주 변화의 원리』, 행림출판.
- Dominique Bourg(1993), *La Nature en Politique ou l'enjeu philosophique de l'écologie*, L'Harmattan.
- Emile Crogner(1993), "Que sais-je?," *L'Ecologie humaine*, P. U. F.
- Colloque de Cordoue(1980), *Science et conscience — Les deux lectures de l'Unives*, Stock.



- G. Durand(1960), *Les structures anthropologiques de l'Imaginaire*, Dunod.
- (1964), *L'Imagination symbolique*, P. U. F.
- (1996), *Introduction à la mythodologie*, Albin Michel, 1996. 유평근  
역(1996), 『신화비평과 신화 분석』, 살림 .
- M.-L. von Franz(1978), *Nombre et Temps*, Paris, La Fontaine de Pierre.
- (1995), "Quelques réflexions sur la synchronicité," in *La synchronicité, l'âme et la science*, Albin Michel.
- J.-Y. Gautier(1978), *Ecoéthologie*, Masson.
- Matila Ghyka(1952), *Philosophie et mystique du nombre*, Payot.
- M. Granet(1968), *La Pensée chinoise*, Albin Michel.
- R. Guenon(1957), *La Grande Triade*, Gallimard.
- Jung et Kerenyi(1953), *Introduction à l'essence de la mythologie*, Payot.
- Lao-Tseu(1989), *Tao Tö King*, in *Philosophes taoïstes*, Biblio, de la Pleiade.
- Alain Pelosato(1998), *Ecologie et Civilisation*, Editions Nuturellement.
- R. Wilhelm(1973), *Yi King: le livre des transformations*, Librairie de  
Médicis.

## La pensée de 'Poongsoo' coréenne et l'écologie profonde

**Hee-kyung Kim**

Il est fascinant de constater que la science moderne occidentale montre l'homologie avec la philosophie antique orientale dans le système épistémologique.

Au XX<sup>e</sup> siècle, la physique moderne a traversé plusieurs révolutions conceptuelles qui révèlent clairement les limitations de la perception mécaniste du monde et conduisent à une vision organique et écologique qui présente de grandes similitudes avec les conceptions de la pensée ancienne chinoise. L'univers n'est plus considéré comme une machine constituée d'une multitude d'objets séparés que la physique newtonienne s'est imaginée, mais apparaît comme un tout harmonieux et indivisible, c'est-à-dire comme un réseau de relations dynamiques.

Cette nouvelle vision de la réalité rencontre avec la vue écosystémique en ce sens le plus large, qui nous conduit aux phénomènes de la vie.

L'écologie profonde se fonde sur la théorie des systèmes selon laquelle des systèmes vivants se lient et sont organisés de telle manière qu'ils forment des structures multi-niveaux, chaque niveau étant

constitué de sous-systèmes qui sont tout par rapport à leur parties et parties par rapport aux tous plus vastes. C'est ainsi que la vision systémique considère le monde en termes de relation et d'intégration. De ce point de vue, le fonctionnement des organismes est considéré comme guidé par des modèles cycliques de flux d'information, connus sous le nom de boucles de 'feedback,' contrairement aux machines qui fonctionnent selon des chaînes linéaires de causes et d'effets.

La pensée de 'Poongsoo' coréenne comme une sorte de géographie traditionnelle, qui a pour but de trouver la meilleure place pour les vivants or pour les morts, se base sur la pensée antique chinoise selon laquelle l'univers est constitué de continuum unitaire qui continue une fluctuation cyclique et dont le rythme fondamental est représenté comme la notion de deux pôles archétypes —le yin et le yang. Dans la pensée de 'Poongsoo' qui signifie le vent et l'eau, une des meilleures places peut être décidée selon l'harmonie et l'équilibre dynamiques des contraires. Pour le jugement définitive, tous les variants(les montagnes, la rivière, les directions, l'homme) se coopèrent. Dans cette pensée, toutes les directions d'un lieu sont qualifiées. C'est pourquoi la connaissance qualitative de l'espace-temps est plus importante que la connaissance morphologique des courants des montagnes et des rivières.

La vision systémique de la vie que développe la science moderne occidentale, en prenant conscience du fait que nous sommes des éléments inséparables du cosmos dans lequel nous évoluons, se trouve en accord avec beaucoup d'idées propres aux traditions humanitaires, surtout, avec la pensée traditionnelle extrême orientale selon laquelle l'univers est considéré comme l'organisme vivant.

열쇠어: 생태학, 풍수 사상, 생명 시스템, 연결망 패턴, 우주 원형 구조.